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11. 27.(수) 10:3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창룡 상임위원 (1인)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19년도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및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9-58-306)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지원 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주) 재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허가 조건을 추가 또는 명확히 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동의한다. 아울러, 재허가 신청서 중 계산상 오류가 있는 투자계획을 수정하여 과기정통부에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재허가 조건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재무적 건전성> 관련 사항입니다.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주)은 재허가 심사 시에 제출한 3년간 부채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재허가일 이후 매 반기마다 반기 말 기준 부채비율을 산정하고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당해 반기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허가조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이행> 관련해서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주)은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실현 등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재허가조건이 부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허가조건이 우선한다’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주)은 8VSB 상품에서 공익채널과 장애인 복지채널을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조건 추가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뒤 페이지에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주)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사업자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과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8일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 서류를 접수하고, 10월 21일~23일까지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 위원회에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허가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허가 조건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위원회는 11월 14일 재허가 사전동의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결과입니다. 방송·법률·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 3인으로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이씨엔올산중양방송(주)의 재허가 신청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부가한 재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해당 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무적 건전성' 조건 중 추정 부채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타 세부 재허가 조건이 사업계획서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의 8VSB 상품에 공익채널 편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청자 접근권이 확보되도록 권고할 필요성에 대해 심사위원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조건 또는 권고사항이외의 기타의견으로는, 재허가 신청 중 투자계획의 전년대비 증감비율 값이 일부 부정확하므로 이를 수정제출하도록 하여 투자계획 이행 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앞서 보고 드린 재허가 조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약식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제이씨엔올산중양방송(주)에 대해 의결주문과 같이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사전동의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제가 의견드리겠습니다. 보고된 안건은 과기정통부가 심사한 제이씨엔 올산중양방송(주)의 재허가 조건(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사전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조건(안)을 보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잘 제시하고 있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지역성 구현과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시청자위원회 운영, 공정계약 및 협력업체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 부과는 과기정통부가 진흥 측면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적책무 부과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심사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회가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의 심사 과정에서 간과했던 항목들과 계산 오류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서 보완했다고 여겨집니다. 즉, 부채비율 준수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한 것과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재허가 조건이 충돌 또는 중복 되는 경우에 재허가 조건이 우선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서 분쟁소지를 없앤 것, 그리고 8VSB 상품에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편성을 권고한 것은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음 의견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제이씨엔올산중양방송(주)이 소위 영세한 중소방송사로서 개별 SO 아니겠습니까? 부채비율을 보니까 300% 이상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파 3사와 계속 재송신료 협상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상파는 이런 곳에 비해서는 갑인데 많은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3년간 부채비율을

제대로 맞추라고 조건이 나가지 않습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재송신료 협상이 타결되면 분명히 인상된 금액이 나갈 텐데 여기에 대해 사업자의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의견은 계획을 어떻게 청취하셨습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무비율, 부채비율 관련해서 사업자가 제시한 수치의 실현가능성을 보겠다고 조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재송신료 관련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방, 또 영세 중소방송사에 특히 재송신료 협상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는데 자꾸 영세 중소방송들이 어려워지면 제대로 방송사의 역할과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자의 의견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VSB 상품에 장애인과 공익복지채널 편성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알뜰의무형, 알뜰보급형, 알뜰기본형 요금체계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아마 울산의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알뜰보급형까지는 한 달에 내는 돈이 4,000~5,000원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기본형으로 가면 10,000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이 다 보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개념으로 편성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권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알뜰의무형이나 알뜰보급형이 10,000원 미만으로 4,000~5,000원 정도 될 텐데, 여기에 몇 퍼센트 정도 가입되어 있는지, 약 39만 가구가 가입되어 있다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비율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보나마나 상당수가 4,000~5,000원 정도 매달 돈을 내고 볼 텐데 수익성 때문에라도 아마 사업자는 기본형 10,000원 이상 돈을 내는 채널에 심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방송사업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유도할 수 있을지, 그런 정책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허가할 때마다 사업자 의견을 반영

하는 재허가 조건을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고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공익채널 관련해서는 편성을 어떤 티어에 넣는지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부여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알뜰기본형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10,000원이 넘는 상품인데 다른 저가상품들에 비해 채널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저가상품에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SO들이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2016년부터 쪽 권고사항을 SO들에게 재허가 시에 부여하면서 저가상품, 또 2018년 이전 아날로그 상품에 편성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총 70여개 SO에 대해 이런 부분들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권고사항에 보면 8VSB 상품으로 우리 안전에서 특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똑같이 원칙과 합리성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8VSB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SO에 대해 똑같은 이런 권고사항을 붙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전은 기본적으로 사전동의하는 안전인데 이미 충분히 논의해서 안전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주)과 지상파방송사 간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8VSB를 보는 법원의 판단이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디지털상품 관련해서 재송신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이 판결하면서 8VSB 상품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8VSB 상품의 특성상 저가의 기존 아날로그 상품들을 대체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재송신료 지급 여부 분쟁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SO들 플랫폼 사업자들 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8VSB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가 되어 왔는데 그 부분이 재송신료 분쟁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와서 사실은 영세한 SO 입장에서는 불리한 판결이 결국 된 것입니다. 그래서 8VSB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지상파방송사와 CPS 협상하면서 8VSB는 사실상 논의는 되었지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하면서 소송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 주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판단은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간접강제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VSB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한 것으로 이미 결정을 내려서 디지털 전환을 다 한 것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석상 이것을 디지털 상품으로 볼 것이냐, 아날로그 상품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방통위에서 경쟁상황평가할 때는 별도의 8VSB 영역으로 따로 두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 부분은 재판 자체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8VSB 상품도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나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손해배상액을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해당되기 때문에 송출 문제에 있어서는 간접강제 내지 재송신 중단을 판단한 내용이니, 결국 그 부분에 대해 대가 산정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추가로 기록을 위해 제가 하나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석진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재정이 어려운 SO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저가상품의 채널 티어링에 관해 자율성을 부여했던 것은 아날로그 채널의 특성상 채널수의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디지털로서 일정 정도 보완이 되는 8VSB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8VSB 상품 관련해서는 채널수를 넣는 것에 물리적 제한들이 크게 없으므로 심사위원회에서도 공익채널 편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이것을 넣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시청자 접근권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리적으로나 또 실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 부과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제가 반대한 것은 아니고 허 옥 위원님 설명대로 그렇게 권고가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지요. 다만, 제가 의견을 보태고 싶은 것은 지상파와의 재송신 협상이나 또 8VSB에 대한 사업자 부담이 아무래도 재무구조가 취약하니까 그런 중소 방송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지적이니 전반적으로는 우리 사무처에서 올린 안에 저도 기본적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이번에 허가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권고 사항으로 한 취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권고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런 정신을 고려해서 저가상품에도 넣으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는 공익채널 편성에 관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공익채널을 분야별로 1개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플랫폼사업자들은 잘 보지 않는 아주 높은 200번대, 300번대 가서 채널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규제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체제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전체적인 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자들의 부담은 어떻게 하고, 또 다채널 내지 높은 채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전체적으로 수정 의견은 아니고 원안에 동의하신다는 의견이시지요?

○ 김석진 부위원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8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 (2019-58-307)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2018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은 ‘2018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2018년도에 실시한 방송의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2018년도 방송평가 개요입니다. 평가 기간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평가 대상은 총 158개 사업자 367개 방송국입니다. 평가는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평가 절차는 방송평가지원단의 조사 검토 후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과를 의결 후 공표하게 됩니다. 다음 3쪽 <4>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5> 2018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개별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평가 결과를 총점으로 산출하고 사업자군별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연도별 비교를 하였습니다. 먼저 <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1) 지상파 TV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KBS는 총점이

하락하였으나 SBS와 MBC는 총점이 상승하였으며, 평가점수는 KBS1, SBS, MBC, KBS2 순으로 2017년도 결과와 순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별 총점과 주요 항목의 변동 사항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2) 지역민방 TV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위 사업자인 대구방송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으며, 마지막인 케이엔엔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습니다. 평가점수는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전주, 제주, 강원, 청주, OBS경인, 케이엔엔 순입니다.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등 방송사는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심의규정 위반 건수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전주, 제주, 강원, 청주 등 방송사는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하였으며, 자체 심의 등 항목에서 감점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6쪽 (3) 지상파 라디오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AM의 경우 KBS1, MBC, SBS, KBS2 순이며, 전년 대비 모든 사업자의 평가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FM의 경우 SBS, MBC, KBS1, KBS2 순이며, SBS와 KBS2의 평가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의 (4) 지상파 DMB TV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상파 계열사업자는 KBS, SBS, MBC 순이며, 비지상파 계열사업자는 유원미디어, 한국DMB, YTN 순입니다. 전년 대비 모든 비지상파 계열 DMB사업자의 평가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나> 비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종합편성 PP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전년 대비 채널A, JTBC,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상승하였으나 MBN의 평가점수는 하락하였으며, 채널A, JTBC, TV조선, MBN 순입니다. 2017년도 결과 비교 시 순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별 점수 등락과 점수 변동 요인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2) 보도 전문 PP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전년 대비 연합뉴스TV의 평가점수가 많이 상승하였으며, 순위는 연합뉴스TV, YTN 순입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 (3) MSO·위성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MSO의 경우 평균 점수는 티브로드, 현대HCN, CJ헬로, CMB, 딜라이브 순입니다. 다음은 위성방송의 경우 전년 대비 KT스카이라이프의 총점이 8점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9쪽 (4) 홈쇼핑 PP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공영쇼핑을 제외한 홈쇼핑 PP의 평가점수는 하락하였으며, 공영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 순입니다. 사업자별 총점 점수의 등락 및 변동 요인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6>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11월 말 평가결과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방송평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평가결과가 이렇게 늦게 나온 것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자료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각 사업자에 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각각 방송사업자의 평가 특징은 지상파TV의 경우에는 SBS, MBC는 점수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전에는 심의규정 일부 위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심의규정 위반사항에서 플러스 점수가 많고, 그다음에 편성 규정도 잘 지켜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유독 KBS1과 KBS2 점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심의규정도 위반한 것이 있고, 그리고 고위직들 비율을 조치하지 않아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 때문에 감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KBS가 좀 더 분발

해야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민방은 점수가 좋은 대구방송, 또 상당히 점수가 다시 좋아진 광주방송, 울산방송 쪽이 있습니다만 케이엔엔이 2년 연속 점수가 가장 나쁩니다. 그래서 케이엔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종합편성 PP 4개사 가운데 3개사는 전부 다 점수들이 상승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책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굉장히 잘 순응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MBN 점수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MBN은 오보가 있어서 점수가 깎였고, 그다음에 재난방송에서도 MBN은 굉장히 부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쇼핑 점수들이 대체로 하락한 것은 홈쇼핑의 어떤 상품 하나가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으면 이 상품을 홈쇼핑 1개사에만 송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회사에 다니면서 송출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 상품이 제재를 받음으로써 홈쇼핑들이 점수가 감점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민원에 대해서도 감점이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평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존경하는 표철수 위원님께서 평가위원회를 맡으셔서 수고하셨고, KISDI의 평가지원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은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송평가 결과에 대한 것이고, KISDI 평가지원단, 방송평가위원회에서 계량 평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표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지만 저도 이번 계량 평가결과를 통해 나타난 각 방송사 운영사항 전반을 유추해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상파방송 3사의 평가결과를 보면 KBS1, KBS2가 전년보다 총점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 KBS 방송사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다소 부실했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 심의규정과 관계법령 위반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KBS 2TV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이 전년보다 줄었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보다 성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MBC는 전년보다 총점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편성규정 위반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서 방송프로그램 운영이 정상화 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며, 수상실적 점수가 전년보다 상승한 것은 콘텐츠 경쟁력도 점차 향상 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SBS는 그동안 타 지상파방송보다 방송 내용에 대한 방심위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심의규정 위반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민방 가운데 강원민방은 재무 건전성이 전년보다 악화되었고, 자체심의와 관계법령 위반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로컬제작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 해석됩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편PP는 편성 규정, 어린이 프로그램, 그리고 재난 방송 편성이나 재무 건전성이 호전되어서 전년보다 총점이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이제 방송사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MBN은 종편PP 타사에 비해 심의규정 위반, 오보 관련, 또 재난방송 편성, 관련법령 위반 등 전 항목에 걸쳐 전년도보다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방송 내용과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진의 철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2018년 평가에서 특이한 점은 조금 전 표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홈쇼핑 PP의 심의규정 위반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라이브 홈쇼핑 PP가 티커머스(T-commerce)나 모바일 쇼핑과 경쟁하면서 매출 증가를 위해 보다

공격적인 방송을 한 측면도 있지 않은가 추론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를 오도하거나 아니면 객관성을 결여한 방송을 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홈쇼핑 채널은 유통사업자지만 동시에 정부 승인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 내용의 객관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처에서 홈쇼핑 내용에 이런 결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해서 사후 심의를 강화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무려 158개 사업자 367개 방송국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하시느라고 표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상파 TV에 특히 SBS나 MBC는 총점이 다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KBS 1채널과 2채널 KBS 두 채널 모두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심의규정 위반에 많은 감점이 있었고, 또 관계법령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감점이 있었는데 국가기간인 공영방송으로서 준법정신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간인 공영방송이 누구보다도 제규정을 잘 지켜야 할 일종의 모범 방송을 해야 할 텐데, 다른 곳을 보십시오. 오히려 SBS나 MBC는 심의규정 위반이 없습니다. 오히려 SBS의 경우 플러스 점수를 34점 이상이나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반성이 필요합니다. 가뜰이나 재난 주관방송사로서도 못 해서 국감에서 지적을 엄청 많이 받았고, 경영도 엉망이고, 영업이익도 1,000억원대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총체적인 부실덩어리 공영방송 국가기간방송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경영 쇄신, 인적쇄신, 또 책임지는 자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정말 절박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지역민방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역민방 총점이 하락했는데 강원방송, 케이엔엔 다 자체심의 감점이 -15점, 또 편성규정 위반 -24점, 자체 심의는 무엇이지요? 자체심의는 어떤 점수입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사전심의 대상 중 심의건수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자체적으로 심의를 꾸려서 하는 것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 비해, 특히 강원방송, 청주, 경인 모두 자체심의가 다 감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종편을 보면 단연 두드러지게 점수들이 다 올랐는데 채널A가 약진한 것이 두드러집니다. 총점이 38점이 상승했고, 편성규정 그다음에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재난 방송, 재무건전성, 관계법령 위반 항목이 전부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서 1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채널A가 아주 약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 MBN은 감점받은 평가항목들이 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심의규정이나 오보, 특히 오보 부분에 이런 감점이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방송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엄중한 각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보도전문 PP도 보면 올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YTN이 1등을 하고 연합뉴스가 2등을 했는데, 2개뿐이지만 점수 차이가 거의 박빙이었는데 올해는 15점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YTN이 심의규정 위반으로 감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규정을 잘 준수하고, 또 기술투자,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하면 역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홈쇼핑도 앞서 허 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영쇼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평가점수가 하락했는데 가장 큰 이유를 보니까 전부 심의규정 위반입니다. 특히 현대홈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은 심의규정 위반으로 감점이 무려 47점, 43점입니다. 심의규정 위반이 허위·과장 광고지요? 그렇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런 허위·과장 광고로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시청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주고 어떻게든 매출을 올리기 위해, 영업이익을 노리기 위해 광고라는, 그것도 다 굴지의 홈쇼핑들이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앞서 위원님들 지적처럼 이런 부분들 반영되도록 해서 정말 대오 각성하도록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심의규정 위반이 골고루 전부 방송평가에서, 하여튼 준법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다 지켜야 하는데 이런 심의규정을 다 위반하고, 편성도 전부 다 엉터리로 하고 채널A를 보십시오.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에서 무려 15점 가산점을 받았고, 재난방송 편성도 10점을 받았습니. 항상 방송사업자들이 규정을 잘 지키고, 특히 제작비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들이 이 평가에서 여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평가정책과에서도 사업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주시시켜서 다음에는 좀 더 다 같이 분발해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었고, 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허 욱 위원님 여기에 대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것은 기존 방송평가 규칙에 따른 평가입니다. 지난해 방송분이고, 내년부터는 개정된 방송평가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올해 방송분부터 적용될 텐데 여기에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 골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송평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크게 내년부터 규칙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위반 등, 위반 건 때문에 감점이 되는 평가항목은 옛날에는 기본점수를 부여해 두고 여기에서 감점을 했는데 이제는 총점에서 직접 감점을 하기 때문에 비중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이에는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한 것을 다루었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재를 받은 것도 감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항목별로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각 매체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별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했기 때문에 배점이 다 조정되었고, 또 전체 배점도 조정되었습니다. 가령 지상파TV 방송은 총점이 900점에서 700점으로, 지상파 라디오는 500점에서 300점으로, 종편은 700점에서 600점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재난방송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평가할 때는 현행 5등급 평가에서 9등급 평가로 세분화해서 매체별로 특성에 맞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도 분야에서는 주시청시간대 보도 분야 편성비율을 그 사이에 42%로 되어 있던 것을 40%로 축소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적정성 평가 대상사업자에 EBS도 중요한 지상파이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주제작과 관련해서는 상해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적정한지, 상생협업체 운영이 적정한지 이런 것도 평가항목에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UHD 프로그램 편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UHD 방송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도 PP에 대해서는 단순 보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 프로그램의 수상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수상실적을 평가하도록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송 의무편성 사업자인 SO·위성에도 재난방송 편성 평가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방송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홈쇼핑 PP에는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항목이 신설되었고,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지만 홈쇼핑 PP들에 대해서는 소비자 민원 평가 배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협력업체에서 평가하는 만족도 항목이 별도로 점수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었기 때문에 일단 끝자만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홈쇼핑 문제에 있어서 심의 규정 위반이 그대로 허위·과장 광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심의지표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허위·과장 광고라고 표현을 하면 혹여 오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심의규정 위반 문제가 지금 표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위반 건수마다 감점을 해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입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바꿉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부분도 공개할 경우 심의규정 위반에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고 플러스 점수가 나오는 것이 이 결과를 보는 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기준에 대한 설명들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지금 안건에 나와 있는 플러스마이너스는 작년도 대비 상승 하락폭입니다. 작년 심의규정 NS홈쇼핑은 -18이라는 것은 작년도 대비 심의규정 위반 건수가 늘어나서 18점이 하락됐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결과를 그대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 특정 방송사업자와 어느 방송사와 비교할 때 현저히 많은 위반 건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것이 제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어야지, 플러스 몇 점, 마이너스 40 몇 점 이렇게 나오면 2개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위반 건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 평가결과를 받아보는 사람은 그렇게 밖에 보일 수 없는데, 그것은 결과에 대해 부적절하게 고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균등하게 비교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평가결과를 보도하거나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혹시 이 자리에 방송평가할 때 평가지원단에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원단의 성옥제 박사가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언론인들도 계시니까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 한상혁 위원장

- 개선도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말씀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심의규정 위반에 -43점, 플러스 몇 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두 사업자 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성옥제 KISDI 방송제도그룹장

- 방송평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KISDI의 성옥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건수의 절대점수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더 맞는데, 실제로 평가위원회에서 결과를 의결할 때 전체 <표>를 그립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가 된 사업자들이 점수가 많이 깎여서 마이너스가 많이 된 사업자와 유사한 정도는 아니고, 마이너스가 많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절대수치를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사업자들을 명시한 것이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데이터 <표>를 만들어서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첨언하면, 전체적인 방송사업자들의 항목별 균등비교를 절대평가로 한 것이나 관련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평가는 개별방송사가 전년 대비 어느 평가 항목에서 어떤 정도의 변화가 있느냐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따라서 재허가 심사에서 평가점수가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 것은 그러한 객관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고, 아까 말했듯이 비교의 기준치, 그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 모 종편이 '작년 평가결과를 모 회사 신문에 박스 기사로 종편PP 중 우리가 1등 했다'라고 쓴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방송평가 제도의 취지를 어떤 면에서 왜곡하는 측면으로 독자들에게는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항목에서 이러이러한 평가항목이 전년보다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각 항목, 우리가 이만큼 개선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동종비교를 통해 우리가 1등이라고 판단되면 모든 평가지표가 그런 식의 완전 절대적인 평가항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지표에 관련해서 백브리핑을 좀 더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평가결과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져야지, 지표에 따라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드린 것이니까 이후 보고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CJ헬로(주)와 KT(주)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CJ헬로(주)와 KT(주)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정책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CJ헬로와 KT(주)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배경은 「CJ헬로(주)와 KT(주)간 체결한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 건」 관련 양 당사자 협의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 추진 경과는 올해 3월 18일 신청인 CJ헬로(주)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였고, 11월 6일 제53차 위원회에서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22일 양 당사자가 재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주요 내용으로 제53차 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제34조 제2항에 대한 개정안 협의를 권고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위원회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협정서를 개정할 것을 합의하고

‘재정신청 취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본 재정 건의 종결과 병행하여 협정서 제35조 제1항에서는 협정서 제34조 제2항 위반 시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양 당사자가 협정서 제35조 제1항을 재정 신청의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해지 이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지난 제53차 회의에서 사업자 의견을 청취했고 의결을 보류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사업자 간 협의를 한 번 더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에 대해 양 사업자가 화답하여 합의안을 마련하고 재정신청을 취하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협정서의 합의 문안은 비공개 사안이지만 우선 KT가 기존 협정서의 사전 동의 부분에 대한 CJ헬로의 의견을 대승적으로 수용했고, 양사 간 사전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는 점에서 KT와 양사 협상책임자, 실무자 그리고 사무처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협정서에 계약위반 시에는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 달의 기간으로는 이용자 피해대책 마련 시간이 짧다고 보고 우리 위원회가 보완책을 권고한 것입니다. 양사가 이 점을 유념해서 이용자보호에 대한 보완 대책을 추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2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3분 폐회 】